

3) 순천공립농업보습학교

전남지역에서 최초의 공립중등학교는 1909년에 설립된 광주공립농림학교이다. 1910년 당시 전국에 관공립중등학교는 16개였는데 그 중에서 실업계 학교가 12개였다. 실업계 학교를 많이 설립한 것은 통감부의 소위 실학 위주의 교육방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의 실질적인 의도는 실학주의라는 미명 아래 식민지에 필요한 저급한 산업기술인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남 각 지역에 농업보습학교가 설립된 것은 1920년 후반부터이다.

순천농업보습학교는 1926년 10월 원래 수비대가 있는 곳에 개교하였고, 1927년에 본래 객사로 이전하였다. 1930년 순천농업실수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학교의 방침은 모범농민의 양성, 공민적 교양의 연마, 근검정신의 육성이었다.

순천남교의 연혁에 따르면 1938년 폐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학교는 1935년 순천공립농업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농업의 중심지인 순천의 농업기술인 양성을 담당하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또한 중등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공민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